

11월25일 월요일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과 온갖 박해와 핍박 등, 쉽지 않은 환경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가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일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고 그 위해 서는 길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하기 때문입니다.

4장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는 전제를 부을 때가 되었다는 말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6-7절). 성도의 인생은 선한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무엇인가요?

디도서 1장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바울 사도가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그레데교회에 불순종하며 헛된 말로 속이는 거짓교사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어(10-11절), 바울은 디도에게 참된 지도자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두었나요?

2장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본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도들(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등)에게 필요한 양육 지침을 줍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해 봅시다.

3장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라

본장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2:14, 3:1, 8절)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11월26일 화요일

빌레몬서 1장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 자라 바울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도망친 죄수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10절).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사도가 너무나 잘 아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면서 빌레몬의 용서와 용납을 부탁드립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 보내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 일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로 생각하고,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히브리서는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1세기의 히브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특별히 본장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천사 숭배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 1)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십니다. (5절)
- 2)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로부터 ()를 받으실 분입니다.(6절)
-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에 앉으실 분입니다(13절)

2장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본장에서는 예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 즉,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9-10절) 이렇듯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요?(18절)

3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본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1절). 이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2-6절)

11월27일 수요일

4장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습니다(1-13). 그러나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나요?

- 1) 2절:
- 2) 6절: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안식을 맛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5장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4:16), 절대적으로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을, 또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것임을 시편 2:7절을 인용하여 가르쳐 줍니다. "너는 ()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6장 복 주고 복 주며, 변성하게 하고 변성하게 하리라.

본장은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성도님들 에게도 아브라함에게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변성하게 하고 변성하게 하리라."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3-15절)

7장 네(예수님)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본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우월한 제사장인지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 "대제사장 예수님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11월28일 목요일

8장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본장은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성취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3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에 두고, 그들의 ()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9장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본장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의 제사와 제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와 제물에 대해(1-10절), 그리고 신약의 완전한 제사와 제물(11-14절)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1) 26절: 이제 자기를 ()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 드리신 바 되셨고

10장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갈 담력을 얻었나니
 본장서는 항상 인내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그의 육체의 휘장을 통해 난' 길입니다. 찢어진 휘장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장 믿음으로
 본장은 "믿음으로"라는 살아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첫 시작은 무엇인가요?(3절)

11월29일 금요일

12장 예수를 바라보자
 11장에 열거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믿음으로 경주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의 경주를 지켜 볼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2) 1절: ()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3)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를 바라보자!

13장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본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권면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위기의 시대에,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는 책망하고 경고하였습니다. 본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서신은 박해로 인하여 흔들리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권면이 바로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기뻐할 이유가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를 만들어 내고, ()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성숙) 때문입니다. (2-4절)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누구인가요?

11월30일 토요일

3장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본장은 혀(말)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나(3), 배를 조종하는 키(4)에 비유될 수 있을 만큼 지배력이 있습니다. 또한 혀의 파괴력은 대단해서 작은 불씨가 산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5).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 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4장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3장에 이어 계속해서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에게보다, 기도하면서 ()와 ()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12절). 즉, 형제에 대한 내 말이 험뜯음이나 비방이 아닌 기도가 되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5장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7절). 야고보는 세 가지 인내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1) 7절: ()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2) 10절: 주의 이름으로 말한 ()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3) 11절: 너희가 ()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